

지역 매 아리

#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총력

## “시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완주군, 벼 출수기 병해충 방제 주의

완주군이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는 벼 이삭 패는 시기인 출수기를 맞아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벼의 생육후기인 8월 중순(출수기)에서 수확기 사이는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등과 이화명나방, 흑명나방, 멸강나방, 먹노린재, 벼멸구와 흰등벼구 등의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다.

흰잎마름병은 잎 가장자리에 흰 줄무늬가 형성돼 회백색으로 말라 죽게 되는 것으로 태풍이나 호우 전 적용약제 살포로 예방해야 한다. 이삭도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썰에서 낱새가 나며, 밥맛, 찰기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세균성벼알마름병은 이삭이 켈 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되므로 출수기 전후 기상상황에 따라 이삭도열병 약제와 혼용해 동시 방제가 가능하다.

벼 생육 후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쌀의 수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병충해 발생이 의심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신고(290-3302)하여 빠른 조치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형순 농업기술센터 식량자립팀장은 “아침, 저녁 주기적인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여부에 따라 쌀 품질이 달라진다”며 “농약 사용 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유의해 농약의 등록여부 및 안전사용기준을 농약정보서비스나 농약판매상에게 확인 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시장, 주한미국대사관 농무담당 관계자 초청 수출 마케팅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2일 주한미국대사관 농무관실 및 농업무역관실 관계자를 초청해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IR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미국 수출 개척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제시는 경기침체와 내수시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 모색과 새만금지구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피터 울슨 수석농무관, 앤드류 앤더슨 농업무역관장, 미국 농무성 조디 에릭슨 마케팅담당관 등 모두 6명이 방문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 박준배 시장이 동행하면서 농산물가공품 생산기업과 새만금지구를 직접 소개하는 등 현장방문 위주로 진행되었다.

우선 미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올해 시설을 확장하고 냉동부음밥을 생산하는 (주)한우물과 100% 김제쌀을 원료로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 박씨네 누룽지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생산품과 시설을 둘러보고 미국 판로 개척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주)한우물에서는 전 세계 코스



김제시는 22일 주한미국대사관 농무관실 및 농업무역관실 관계자를 초청해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IR을 진행했다.

트코 매장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미국 LA 지역 수출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지구를 방문하여 대중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투자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국제협력용지와 농생명용지에 대한 투자 여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미국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제시에서는 이번 초청이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향후 미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IR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배 시장은 “지속적인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통해 수출 길을 열어갈 것이며, 새만금지구에 미국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396억원규모 편성

김제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6% 증가한 9,396억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8422억원보다 97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99억원(11.60%)이 증가한 8645억원, 특별회계는 75억원(11.11%)이 증가한 75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다.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노인 및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추경관련 주요 사업을 편성했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경상경비인 국내여비 5%를 절감, 건전재정운영 확대 및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건의한 각종 사업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15억원, 인구정책 및 지원 7억원 등 40억원을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7억원 등 14억원을 편성,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33억원, 하기전용구장 조성 19억원 등 127억원을 편성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16억원 등 7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24억원 등 105억원을 편성,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생활민원 해소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및 농로포장공사 등 271억원을 편성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복합창년분 조성사업 13억원 등 153억원을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 27억원 등 91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6일에 최종 확정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여건·주민수요에 부합하는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보건소

#### ‘영양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 진행

김제시보건소(김형희)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및 우유를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모집하고 지난 21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자 모집으로 57가구 63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콩, 우유, 김 등의 식품을 대상자의 가정으로 배송하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충식품 제공 시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쌀과 계란 등 지역농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21년 교류’ 완주-칠곡 새마을회 우정 다져

완주 새마을회-칠곡군 새마을지도자 공동 발전도모

완주군 새마을회(회장 임필환)가 경상북도 칠곡군 새마을회와 교류 행사를 갖고, 우정을 다졌다.

완주군과 칠곡군은 지난 1999년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민간단체인 새마을지도자 공동 교류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완주군 새마을회(회장 임필환)는 지난 21일 영·호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칠곡군을 방문해 영·호남 새마을 문화교류 화합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교류행사는 해마다 번갈아가며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는 완주군 새마을회가 칠곡을 찾았다.

완주군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은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을 방문해 상견례를 치른 후 새마을테마공원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새마을회는 지난 21일 경북 칠곡군을 방문해 영·호남 새마을 문화교류 화합행사를 가졌다.

도자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부인인 유현정 여사와 백선기 칠곡군수 내·외가 참석해 더욱 자리를 빛냈다.

임필환 완주군 새마을회장은 “21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류행사가 동서화합을 넘어 국민대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산업단지 미세먼지저감 숲 조성

완주군이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한다.

22일 완주군은 완주일반산업단지와 전주과학산업단지내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일반산업단지내 전주과학산업단지 녹지시설은 394,203㎡ 전체면적의 11.7%이다.

특히,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녹지 시설은 전체면적의 6.22%(196,215㎡)로 녹지률이 낮아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차단을 위한 녹지 확충이 요구됐다. 이에 완주군은 추경에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을 투입, 2.2ha의 숲과 도로변 가로 녹지 6.4km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과거 큰 수종을 선정해 다층구조로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완주산업단지내 3ha의 숲이 조성될 경우 연간 504kg(168kg/흡수/1ha/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질 개선, 기후조절(열섬완화), 소음감소, 정서함양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도시환경 개선과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발생원 확산차단에 효과적인 숲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3월 삼례읍에 총 3.1ha 면적의 삼례상생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녹지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